



인터넷신문 www.경영저널.com

THE CRITIC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Y

경영저널

Hot Issue 인공지능 기술로 보행자 안전 지킨다. 스마트횡단보도 본격 운영

공공요금 원가계산용역기관 선정 지침

시사in 전동킥보드 시민 안전 위협

커버스토리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

지자체가 된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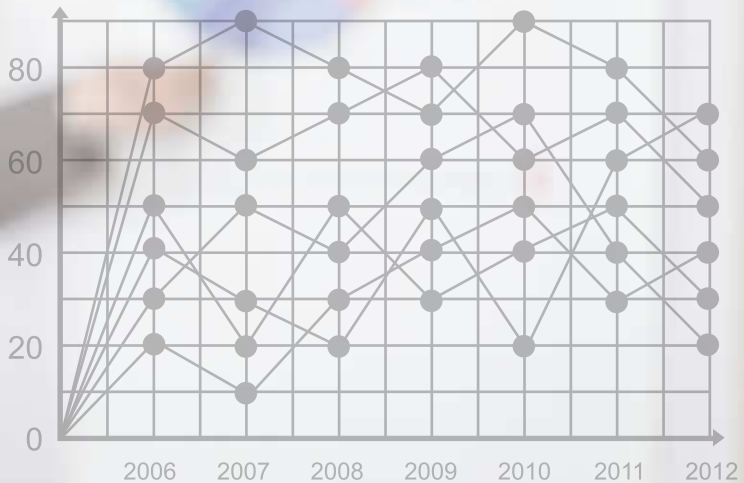
산업 산업대전환으로 지역전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경북도

칭찬합시다 대구 동구청 축제의 여왕, 관광정책팀 진영 팀장



66TH
2025 **3**

www.**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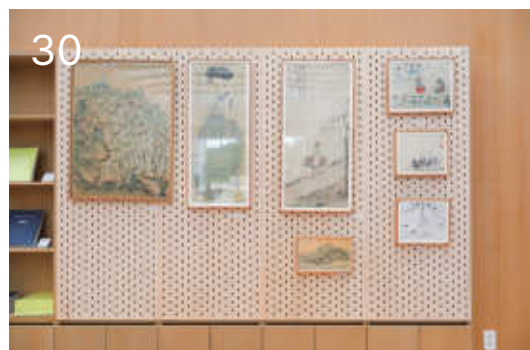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 06 **청호(靑浩)칼럼**
대통령, 비상식적인 비상계엄
- 08 **경영평가**
경영평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 **공공요금 진단**
원가계산용역기관 선정 지침
- 12 **법과 제도**
전국 '쓰레기봉투' 가격 천차만별, 지역마다 주민부담률에 따라 차이
- 14 **커버스토리**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
- 22 **지자체가 된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 도약
- 25 **경북도 산업**
산업대전환으로 지역전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경북도
- 28 **음식명가**
최고의 맛과 서비스 한우 소고기 맛집 "날마다좋은집"
- 30 **대구간송미술관 기행story**
대구간송미술관을 가다
- 34 **Hot issue**
인공지능 기술로 보행자 안전 지킨다. 스마트횡단보도 본격 운영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정책결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론조사 및 종합학술연구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6년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과물을 제공합니다.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811-2820



- 38 **지역정가 소식**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인숙 의장, 이연미 부의장
- 42 **칭찬합니다**
대구 동구청 축제의 여왕, 관광정책팀 진영 팀장
- 44 **축제 및 관광 story**
2025 대구마라톤대회
청도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
- 46 **초대석**
대구광역시 창업정책에 관한 제언
- 44 **시사 in**
경북경찰, 전동킥보드 단속 결과
3,462건 적발... 시민 안전 위협
- 48 **정책 제안**
성공적인 지역축제
- 52 **대구 경북 단신**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
경상북도 수출 415억 달러 목표로 해외시장 개척 총력
- 54 **연구보고서 동향**
보행자 중심의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변화



경영저널 YOUTUBE

경영저널

통권 제66호

발행인	이진구
편집국장	김문철
편집위원	조대영, 윤일형, 박균익, 김용우
취재	김원현, 오상원, 이가윤, 이경윤
사진	신영민
편집디자인	김수영
디자인·인쇄	위커스 대표 김정석
발행처	http://www.경영저널.com
본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대로5길 48-19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9 FAX 053) 766-0379
등록번호	경산. 라 00011
창간	2007년 11월 5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1369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100,000원
정가	10,000원
예금주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은행 225-12-003611
	농협은행 301-0258-049101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용지 1장(글자 10포인트)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시 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대로5길 48-19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bmjglobal999@gmail.com
전화: 053)766-1368~9 FAX)766-0379

대통령, 비상식적인 비상계엄

윤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03일 11시에 비상식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14일에 위헌 및 위법 사유로 야당과 여당 이탈표로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하였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내란죄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

윤대통령, 스스로 하야 결정해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8차 이상 변론기일 절차를 진행하면서 졸속과 형식적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인용 결정이 나오면 우리 국민은 양분으로 분열되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윤대통령은 현재의 탄핵심판 전에 단기적 임기를 내세우고, 스스로 하야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탄핵기각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통치행위는 법으로 해결하여서는 안된다』

오늘날 우리 경제와 문화는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여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정치의 모든 사안을 고소·고발을 통한 적대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대통령 통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성이 없는 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국 대통령은 탄핵소추는 있었지만, 실제로 탄핵 결정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법 위에 존재하며,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만 자유민주적 법치 국가가 실현될 것이다.

제7공화국 헌법개정

우리는 탄핵정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대국민 토론과 여야합의를 통한 헌법개정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7공화국은 우리 국민과 정치인들의 시대적 과제이며, 역사적 사명이다. 법치주의는 삼권분립에서 출발하여 국민의 인권을 최

우선 하는 국가의 통치원리이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기본원칙이다.



『우리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다』

조선 말, 동학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처럼 지금 우리에게 시대적 영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종은 동학혁명에 청·일 외세를 끌어들이므로써 결국 조선을 멸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지금, 탄핵 반대에 앞장서는 전한길 강사를 법적으로 논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근원을 해칠 것이다.

순수한 민중봉기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대적 요구인 동시에 역사적 사건으로 제7공화국을 탄생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제6공화국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과 다수당 독재 횡포

제6공화국 헌법은 40년이 된 시대적 산물로서 21세기 첨단문화 시대와는 그 가치와 이념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은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 다수당의 독재 횡포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민주주의 항쟁을 통한 헌법개정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을 탄생시킨 위대한 국민적 산물이었다.

우리는 탄핵정국을 제7공화국 시대로 지혜롭게 전환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이념적 다양성, 공정성, 그리고 견제와 균형 있는 헌법적 가치를 물려 주어야 할 것이다.



이진구
대표이사·발행인



INCELLDERM



자이언트 병풀과 제주용암해수가 만나
진화하는 광채에너지

ALL NEW 인셀덤 더마톨로지 기초3종



경영평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영평가제도

경영평가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기관별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영평가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평가, 평가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이 원인이다.

경영평가의 문제점

◇ 획일적 평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립 목적, 규모, 운영환경이 다른 많은 공공기관이 있지만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노력 없어도 성과가 좋은 기관(에너지 관련)과 환경적 한계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관(산업진흥 관련)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 경영평가 항목이 과도하여 피감기관은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전문가가 모여있는 경영평가 전문기관이 아닌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간 소통부족과 공공기관의 세부 사업 내용이나 산업동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제한된 시간내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구조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행안부에서 설계한 평가모델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설립 목적이 같은 지자체와 설립 목적이 다양한 공공기관의 평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평가 도입과 대학교수, 회계사, 변호사가 아닌 경영평가 전문가집단인 경영평가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 제고와 공공기관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대영 부원장



원가계산용역기관 선정 지침



원가계산의 목적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면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정가격에 대한 원가계산 미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다 피해를 방지하고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원가계산은 검증되지 않은 부적격업체에 의뢰하여 부실원가계산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 및 법적근거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 다음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 민법,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2호)

원가계산용역기관 인력구성 및 주무관청

지역	내 용
법적 인력구성 (강행기준)	• <u>원가계산 상시고용 10명 유지</u> - 원가계산 경력 5년이상 2인 - 원가계산 경력 3년이상 4인 - 이공계 학위소지자로서 초급기술자 2인 - 상경계 학위소지자로서 초급기술자 2인 ※ <u>상시 고용인력 확인 이유</u> : 한국원가관리협회(지방계약원가협회) <u>가입시점에 고용인력에 대한 서류 확인 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u> <u>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u>는 허점을 악용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많음
법적 자본금 (주무관청)	• <u>원가계산용역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u> - <u>기획재정부 소관</u> 원가계산용역기관 : 자본금 2억원 - <u>행정안전부 소관</u> 원가계산용역기관 : 자본금 1억원 - 기타 타 주무관청 : 일반법률 규정 적용

오상원 연구원

전국 '쓰레기봉투' 가격 천차만별... 왜 다른지 아세요?

대구시 670원, 의정부 840원, 과천은 440원...

지역마다 주민부담률에 따라 차이...

지자체들, 제고 관리·가격 산정 제대로 할까?

매일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19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처리 비용도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쓰레기봉투 사용이 의무화됐다.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쓰레기 종류와 처리 방법, 배출처 및 용량별로 다양하다. 가격도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자체가 쓰레기처리비용, 봉투 비용,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해 안 되는 쓰레기봉투 가격, 지역마다 천차만별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자체마다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었다. 생활쓰레기용 20L짜리 쓰레기봉투 가격을 살펴보니 대구시는 670원이며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440원으로 가장 싼 군포시가 900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기 의정부시와 파주시가 840원, 800원으로 그다음으로 비쌌다. 전국에서는 경남 양산시 950원으로 가장 비쌌다. 지자체별로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유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니 담당

직원의 대답은 이랬다. "주민부담률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 권고에 따르면 주민부담률 조정하여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쓰레기양, 소각장처리 용량 또는 타 지역으로의 운반비용 등 지자체마다 상황은 천차 만별이라는걸 감안 하더라도 지역마다의 금액 차이는 이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또한 '지자체들이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톤 당 처리 비용은 합당하게 계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8월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가 작년 7월부터 서울과 전국 56개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제

작량과 판매량, 재고량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했다. 그 결과 5개 지자체(서울 서초구·종로구, 경기 성남시·용인시·안양시 등)의 경우 제작량·판매량 차이보다 재고량이 총 1790여 만장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다. 성남시는 약 287만 장이, 용인시는 769만 장이 부족했다. 각각 14억 원, 50억 원의 세금이 날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단체는 적발된 기초단체 5곳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지난 7월 1일 고발했다고 한다.

단순한 관리 부실인지, 업체와의 유착 탓인지는 차후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문제는 관리 부실이 불법 유통과 세금 누수로 이어지며 결국은 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쓰레기봉투도 '짜통'이 있다

전국 지자체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제작·관리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2010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을 쓸 것을 강권하고 있다. 또 그 기술에 관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적시해 놓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QR코드의 위조방지 기능을 뒷받침하는 특허나 그에 준하는 기술을 보유한 봉투 제작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었다. 혹은 보안업체와 QR코드 제작 계약을 맺고 봉투 제작업체에 기술 지원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국 종량제 봉투의 위조방지 수단인 QR코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봉투

제작업체의 QR코드 특허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은 '도미노 효과'를 초래한다. 우선 세금 누수가 발생한다. 진짜든 가짜든 모든 봉투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외부업체가 수거·운반해 간다. 이때 지자체는 쓰레기 1톤당 처리 단가를 책정해 외부업체에 지급한다. '특허 등으로 입증된 위조방지 기술을 사용하라'는 정부의 봉투 제작 방침도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유통을 막겠다는 미명하에 10여 년째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모조품 또는 불법으로 제작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판매소 지정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위조방지 수단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관계자는 "사실 QR코드는 위조방지 수단이라기 보다는 제품 관리 수단에 더 가깝다"며 "지폐 수준에 달하는 고도의 위조방지 기술을 적용하려면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위조방지 기술 강화뿐만 아니라 저조한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자치체에서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제작일련번호를 새기는 생산이력관리 및 형광물질을 가미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에 힘쓰고 있다.

김원현 본부장



| 인터뷰 |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Profile

1955년 08월 15일 김천 출생

2022년 07월~ : 제33대 경상북도지사(민선8기)

2023년 08월~ : (사)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명예회장

2022년 08월~2023년 12월 :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2018년 07월~2022년 06월 : 제32대 경상북도지사(민선7기)

2008년~2018년 : 3선 국회의원 (18·19·20대)

2017년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017년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

2016년~2018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16년~2017년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2023년 베트남 호찌민대학교 명예박사

2013년 경북대학교 명예 교육학 박사

2007년 대구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200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석사

1978년 경북대학교 수학교육과

1974년 김천고등학교

수상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2022년 제11회 대한민국 실천대상 도정발전 부문

2021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자치행정경영 부문

2017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의정발전) / 대한민국 나눔봉사대상

2016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2007년 홍조근정훈장

저서

2018년 변해야 산다

2011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08년 출근하지마라 답은 현장에 있다

소통과 화합의 도정 추진으로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재도약을 위한 비상의 나래를 펼치며 희망찬 경북의 미래,
나아가 초일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문화융성’과 ‘과학기술’ 그리고 ‘국민통합’을 토대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이 현실화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님을 필두로 2025년에는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길을 더욱 힘차게 달려가고자 한다.

‘민생’, ‘행복’, ‘도약’의 3대 키워드에 주안점을 두는데, 도민들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먹고·놀고·즐기며 안심하고 아이낳고 키울 수 있는 ‘행복’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며, 교육과 산업이 더욱 융성해져서 일자리가 넘치고 모든 분야에 대전환이 확산되는 ‘도약’의 해로 도정 운영의 방향키를 잡고 앞만 보고 매진하는 이철우 지사님을 만나 그 동안의 도정 성과와 앞으로의 도정추진방향, 그리고 미래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2025년 새해 새롭게 구상하는 사업이나 도정 방향은?

A 2025년에는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길을 더욱 힘차게 달립니다. ‘문화융성’과

‘과학기술’ 그리고 ‘국민통합’을 토대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이 현실화되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일자리가 넘치고 다양한 분야의 대전환을 통한 도약, 지방에 살더라도 수도권 못지않은 행복, 안전하고 걱정을 줄이는 민생을 중점적으로 챙길 계획입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확대합니다.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사업을 정착시키고,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장려 아이보듬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도청 신도시 756세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는 통합돌봄 클러스터를 건립합니다.

농업대전환도 전국 확산을 유도합니다. 청년들이 농업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 창업보육사업 등을 펼치고 산림 및 해양수산 대전환을 통해 소득향상과 인구 유입을 도모합니다. 교육과 인재의 힘은 엄청난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구체화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수소특화단지
와 대구경북 전역에 청정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리튬인산철 배터리
산업인프라를 강화하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와
이드 밴드갭·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기반을 구축해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거점을 마련합니다.

1980년대까지는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이끌었다면
90년대 이후부터는 기업이 나라를 이끄는 시대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정책, 금융, 벤처, 기
술지원의 4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도 확실히 챙깁니다. 경
북형 재난예측시스템을 강화하고, 주민중심 대피시스템
인 K-시티즌 퍼스트를 확대합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행복경로당 운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와 취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행복밥
상도 처음으로 운영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
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Q 지난해에도 많은 일을 하셨다. 도정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A 2024년은 혁신에 혁신을 더한 해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저출생과 전쟁, 민간
투자 활성화, 농업대전환, 교육혁신 등 경북의 힘으로 새
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한해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성과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입니다.
각계 각층의 지지 선언과 최단기간 146만 명의 지지 서
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500만 대구경북 시
도민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욱 기쁩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저출생과 전쟁도 빼놓을 수 없습
니다.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겠냐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반전
과 성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성금 모금과 언론의 동참도
한몫했습니다.

지역경제 성장의 불씨는 민간투자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인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
택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전담부서인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하고 투자전략회의를
통해 규제개선과 정책특구 지정 등 입체적인 경제투자
정책으로 1시군 1호텔, 광역농산물 유통물류센터 등 대
규모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주주형 공동영농 모델을 도입한 혁신농업타
운은 농업의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로 농가소득 2배를
창출하였고, 농식품부도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아끼
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경북의 농업과 농촌의 혁신을 인
정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대구한의대
와 한동대가 글로벌대학에 선정되며, 안동대·도립대·포
항공대와 더불어 교육혁신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5개 시군이 새롭게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돼 작년에 선정
된 8개 시군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
습니다.

이외에도 군 단위 최초인 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
특구, 포항·안동의 바이오 특화단지, 포항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이 있습니다.

Q 어수선한 시국 속에 서민경제 회복이 시급하다.
민생 안정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은?

A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입니다. 혼란
한 정국이지만,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 지역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제는 심리이기에 위축되지 않고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 SOS 신속 대응반을 구성·운영합니다. 예비비의 집중 투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1분기 내 최대한 신속 집행합니다.

소상공인 생활보탬 경영안정, 농축산물 판매지원과 같이 체감도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까지 동참하는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관광활성화에도 집중합니다. 지난 연말 봉화 산타마늘 축제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축제, 행사에 품앗이 관광을 도입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활력을 더하고, 소비 경기를 끌어 올릴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 등 민간과 함께 온기나눔 봉사, 기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주거 취약시설 화재안전 점검 등을 확대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Q 탄핵정국으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지사님께서 주장해 오신 개헌 필요성에 관한 생각은 어떠한가?

A 1987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의 6공화국이 탄생했고, 우리 국민은 이것이 민주화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37년을 돌아보면 수준 높은 정치 질서가 형성됐다고는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나 의문이 듭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부릅니다. 이기면 모든 것을 가지고 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언제나 좌와 우 두 방향으로 나뉘어 각각 결집하고 중도적 제3정당이나 세력의 실험은 실패로 끝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호떡 뒤집듯 바뀝니다. 이러한 정치적 여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5천 년간 이어진 왕정 시대,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일으킨 경험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지금은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문화적 역량도 대단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한 사람에게 권력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일 수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30여 개의 나라가 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손에 꼽힙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개헌으로 방법을 찾자고 국회에서 1인 피켓시위까지 하며 주장했습니다. 그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쳤더라면 지금의 혼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행의 역사는 되풀이돼선 안 됩니다. 이젠 집단지성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 방식으로 분권형 권력구조를 도입할 때입니다.

양원제를 도입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이왕이면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해서 지방도 살려야 합니다. 헌법을 개정해 협치와 상생의 제7공화국을 여는 것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지름길입니다.

Q 국가적 정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도정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A 지금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적 혼란은 늘 있어 왔습니다. 굵직한 국책사업의 경우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극복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앙정부가 흔들릴 때일수록 지방정부가 더욱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기본에 충실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민생과 지역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온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관광 등 5대 분야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아울러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리 후손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Q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 정치 상황에서 준비에 문제는 없는지?

A APEC 정상회의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대외신인도도 높은 만큼 현재의 국정 혼란이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예산 1,716억 원을 이미 확보했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 실국이 합심해 인프라 조성과 교통·수송, 의료, 숙박 등 분야별 과제를 일정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참관하고 왔습니다. 페루 리마컨벤션센터, 미디어센터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점검했는데,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적 관심과 성숙한 시민의식도 인상 깊었습니다.

페루를 다녀온 후 여러 사항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진행을 위한 품격 있는 정상회의장, 한국 전통미를 선보일 공식 만찬장, 최첨단 IT기술과 한국적인 특색을 갖춘 미디어센터 건립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시설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PRS추진위원장을 맡아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가 머물 완벽한 PRS룸을 조성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의 DNA를 공유하고, 미래 신산업을 보여줄 전시장과 K-한류, K-컬처의 진수를 보여줄 문화행사 공간도 마련합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세계 500대 기업인들을 초

청해 한국의 산업을 보여주고 지역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청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와 APEC 정상회의의 현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APEC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필요한 예산 증액이나 협조, 지원 등에 약속해 우려할 만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되는 만큼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로 경상북도의 저력을 다시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Q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데, 올해 추진 방향과 역점 사항은 어떤가?

A 최근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인 수, 결혼 인식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정책적 노력이 더해져 형성된 반등 모멘텀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분위기인 만큼 저출생과의 전쟁은 확대합니다. 저출생 전주기를 담은 100대 실행과제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꾸준히 하면서 속도 또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현장에서 도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고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청년 이탈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좀 더 근원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에 집중합니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함께 정부도 속도를 내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저출생 극복의 시너지효과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 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과 대응 마련, 현장 체감도 등 정책 수용성에 대한 피드백도 강화합니다.



저출생 극복은 행정의 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민간과 협업의 폭을 확대해 국민 참여와 사회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전문가, 의회, 시군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규 과제 및 규제 발굴, 지역 현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5년 저출생과 전쟁 시즌 2는 저출생 구조개혁 선도, 아이 천국을 위한 핵심사업, 결혼·출산을 망설이는 세대 빅 푸시(Big-Push)에 방점을 두고 대한민국 저출생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Q 경북이 주도하는 농업대전환의 성과가 컸다. 향후 중점 추진 사업은?

A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내걸었던 슬로건이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였습니다. 농사만 지어도 잘 살 수 있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자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접어들면서 농업대전환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대전환의 핵심 시책인 혁신농업타운은 전국 최초로 '주주형 공동 영농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고령 농가는 땅만 내놓아도 배당으로 소득을 보장받고 농지를 모아 집단화, 규모화되니 기계화 영농도 가능해졌습니다. 기계화로 농사는 쉬워지고 이모작까지 가능해져 생산성에 소득까지 오르니 농민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입니다. 벼를 타 작물로 전환하니 쌀 가격 안정에 곡물 자급률까지 올릴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문경 영순들녘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는 공동 영농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경 영순에 이어 영덕 달산, 구미 웅곡 등에서도 지난해 말 소득 배당을 했습니다. 현재 도내 14개소에서 추진 중인 공동영농은 2026년 30개소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9천ha를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산 현장의 첨단화를 위해 2030년까지 도내 비닐하우스의 30%인 2천7백ha에 스마트 시설을 보급하고, 스마트 축산도 1,400호로 확대해 나갑니다. 경북 대표 과수인 사과 산업은 평면 사과원을 조성해 생산과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 대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 또한 지난해 사상 최초 9억 불 달성한 이래 전략 품목 육성과 시장 다변화, 수출 인프라 조성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기존 인력에만 의존하던 작업을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도 추진합니다.

Q 민간투자 활성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A 도정 운영의 한 축은 민간투자 활성화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라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활용해 '투자회사 경상북도'가 되어 민간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된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사업'은 총사업비 1,239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주거 공간을 조성해 청년이 머무는 정주 시대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투자펀드 4호로 선정된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에는 총사업비 7,716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인근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밸리 산업단지 등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보장됩니다. 기업들이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는 물론 반도체, 배터리, AI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많은 전력이 필요한 미래 첨단산업 투자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던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 투자도 펀드를 활용한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 건설 예정인 4층 규모의 경북 수련원 조성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합니다. 문경, 상주 등 백두대간 일원에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호텔 리조트를, 도시지역에는 비즈니스호텔 건립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A 지난 2022년 대구시의 군 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발표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민간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등 예정된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성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의성군 간의 이견이 있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시일 내 기관 간 합의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며, 2월 중 국토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해야 후속 절차를 별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통합 설계·시공에 들어가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면 2030년 목표대로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공항은 우리 후손들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역사적인 대업인 만큼 정부와 대구시 등과 함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Q 끝으로 새해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A 경상북도는 나라가 힘들 때마다 해결사로 나선 저력의 땅입니다. 경북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입니다. 시군과 협력해 지역 사회질서를 지키고, 최일선 민생 현장을 찾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도민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올사년 새해에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편집국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2025
KOREA

APEC 2025 KOREA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 도약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 도약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00만 시민의 열망으로 경주가 개최 도시로 선정된 후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기간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지원 TF' 발족과 국비 확보 즉시 시설 공사 추진을 위한 예비비 투입 등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는 경북에 1조 원의 생산 유발과 8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메가 이벤트다. 멕시코 로스카보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은 중소도시가 세계적 명성을 가진 도시로 도약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만큼 도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정상회의 개최에 필수적인 국비 예산 7,716억 원을 확보한 도는 여야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APEC 특별법)을 근거로 향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국격을 한 층 높이는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 PRS 추진위원장 맡아 정상 숙소 직접 챙기는 등 완벽한 기반 시설 조성으로 APEC 성공 주춧돌 놓아

도는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PRS 등 완벽한 기반 시설 조성을 통해 중소도시 개최에 따른 인프라 부족이라는 우려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 우려가 컸던 숙소 분야는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점검을 통해 경주가 국제회의의 복합지구로 지정될 만큼 객실 숫자 및 인프라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국민들과 글로벌 CEO들이 머물 PRS의 경우 이철우 지사가 직접 PRS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PRS 추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신라·롯데 등 수도권 5성급 호텔을 방문하여 정상급 표준모델을 확정하고 총 35개의 정상급 숙소를 확보(기존 19, 신규 6, 준 PRS 10)해 각국 정상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CEO에게도 한국의 멋과 아늑함이 담긴 숙소를 제공할다는 계획이다.

화백컨벤션센터(이하 HICO)에 마련될 정상회의장은 현

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한국의 멋과 첨단기술을 접목해 다자·양자 회담 진행에 가장 적합하고, 각국 정상들의 동선과 회의 진행에 최적화된 세계 정상급 MICE 시설로 탈바꿈해 오는 9월에는 그 위용을 드러낼 전망이다.

HICO 야외에 들어설 국제미디어센터는 ◇메인브리핑룸, ◇분야별 기자실, ◇인터뷰룸, ◇비즈니스 라운지 등을 설치해 경주를 찾는 4천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에게 최적의 취재 환경을 제공한다. 동시에 한국의 맛과 미를 담은 K-푸드 кей터링과 인테리어, 그리고 K-의료, AI로봇 кей터링 서비스 등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시설로 조성하여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만찬장 예정지인 국립경주박물관은 에밀레종, 금관 전시 등 경주만이 가진 문화 자산을 통해 각국 정상과 CEO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도는 만찬장이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친교와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자리로서 단순히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전통 공연과 K푸드, 지역 만찬주 등 경북 경주의 문화적 매력을 담은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세일즈 경북의 현장이 되다

APEC은 세계 정상뿐만 아니라 글로벌 CEO들이 함께 참석하는 경제공동체 회의인 만큼 이번 행사는 역사상 가장 큰 '세일즈 경북' 무대가 될 전망이다.

도는 글로벌 CEO들이 최대한 많이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록 산업통상부, 대한상의 등과 협력하여 국내외 글로벌 CEO를 1:1로 매칭하는 등 초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엑스포 광장에 조성될 전시관은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최대 'Sale Korea Sale 경북'의 현장으로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대한민국 첨단기술 및 경북의 특색있는 주력 미래산업을 보여줄 첨단미래 산업관, ◇기업관, ◇문화체험관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정상회의 기간 중 경주에서는 ◇세계 석학들이 참여해 반도체, 에너지, 양장컴퓨팅과 AI 등 3대 핵심 미래산업을 논의하는 '2025 경북 국제포럼', ◇한류수출박람회, ◇투자환경설명회, ◇포항·구미 등의 경북 산업현장 시찰 등 다양한 경제프로그램이 개최되어 경북과 대한민국 기업의 세계 진출과 투자 비즈니스 협력 강화의 장이 될 전망이다.

가장 한국적인 APEC, 문화의 힘으로 세계인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물하다

경주의 APEC 정상회 유치 원동력이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인 만큼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K-한류의 원천 경북, 경주의 문화를 세계에 선보인다.

도는 ◇韓문화체험, K-POP, K-뮤지컬, K-음식문화대전 등 5韓, ◇미디어파사드, 드론아트쇼, 가상융합콘텐츠 등 K-콘텐츠, ◇시도·시군 대표브랜드 공연 등 APEC 문화축전 행사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해 경주 문화 확산의 계기로 만든다.



또한 헤리티지, 산업현장 등 다양한 테마별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APEC 기간 경주를 방문하는 참가자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신라왕경 타임머신,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등 경북 문화 DNA와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2025년 APEC을 계기로 세계인에게 글로벌 한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유치한 APEC,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APEC이 되다

85일 만에 147만 유치 서명을 만들어 낸 시민의 힘은 APEC 준비과정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각 기관 단체 대표 140여 명으로 구성된 '성공개최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1일 발족한 데 이어 오는 2월 7일에는 시민 1,000여 명으로 구성된 범시민지원협의회가 출범한다.

경북도와 경주시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으로 이뤄진 범시민지원협의회는 선진관광, 교통질서, 환경 정비 등 선진문화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APEC을 계기로 시민의식 전환 등을 통해 경부를 성숙한 글로벌 도시로 만들자는 새로운 시민운동 모델인 '새로운 경북·경주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경북 경주가 글로벌 10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APEC에 대한 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관심은 얼마 전 끝

난 제1차 고위급회의 자원봉사자 200명 모집에 1,000여 명이 신청해 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에도 잘 드러난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 신청자 중 100여 명은 외국인으로 회원국 유학생 자원봉사자의 참여는 경북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한국과 회원국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유학생의 한국 정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녔다.

시설 인프라, 교통·수송, 의료대책, 경제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등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의 밑그림을 완성한 도는 이태식 전 주미대사 등 국제관계 전문가 5명을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APEC 회원국 관계자, 세계적 기업과의 교류 및 국제적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까지 보여준 경북도와 경주시의 빈틈없는 준비에 현장점검을 나온 중앙정부 관계자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며, "88올림픽이 국제적으로 냉전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듯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 번영의 길을 열고,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역대 최고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국내외 글로벌 기업인들을 비롯한 많은 분이 경주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국



산업대전환으로 지역전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경북도



산업대전환으로 10대 지역전략산업생태계 구축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구무역회관에서 10대 산업 분과의 전문가들과 관계부서 등이 모여 '2024년 산업 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도의 10대 산업(◇AI,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식품, ◇방위산업, ◇섬유) 관계부서, 총괄위원을 맡은 김현덕 경북대 교수와 10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경북은 지역 주력 제조업 중심으로 AI 기술을 융합한 산업전환 모델을 만들고, 기업지원과 투자, 인력양성정책과 연결하기 위해 '산업대전환 거버넌스'를 6월부터 가동했다.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저명한 전문가 70여 명, 10개 분과를 구성한 뒤 산업별 현황 분석, 주요 이슈 점검 등 수차례에 걸친 분과별 토론회를 거쳐 발전 이행안과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차전지 완결형 산업 생태계 구축

경북의 이차전지 산업은 양극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시를 시작으로 리사이클링 분야에 경주시, 봉화군에 더해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구미시, 상주시 등 많은 시군에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경북은 현재 글로벌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정하다고 평가되는 이차전지 산업을 안정화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 소재부터 테스트 필드까지 '이차전지 완결형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확보, ◇이차전지 소재·리사이클링 산업 통합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진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잡았다.

차세대 바이오·백신산업 혁신 플랫폼 조성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시와 안동시를 필두로 2024년 6월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의

성군, 영주시 등 바이오 산업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조성되었다.

경북의 풍부한 농업, 산림 자원과 동해안의 해양자원을 바이오소재로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신약, ◇백신, ◇소재·부품·장비의 3대 혁신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제조혁신·실증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한다.

식품 생산, 소비 인프라 구축 및 미래식품 선도

식품산업의 경우 국내에서 규모가 큰 기업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하지만 매출액 3조원이 넘는 기업이 2018년 1개사에 불과했으나, 2023년 10개사로 크게 늘어났다. 경북은 사과, 포도, 고추, 마늘 등 풍부한 고품질 농산물이 대량 생산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며,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이 개장되는 2030년 이후에는 공항을 통한 수출확대로 상당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비시장 접근성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에서 스마트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고, 외식 및 급식 분야에서 자동화를 위한 로봇과 스마트 키친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거기에 더해 세포 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규제개선과 미래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경상북도

경북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초연결성, 초융합성, 초지능화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기술을 대체하고 산업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자 한다.

제조업 부문이 강한 경북의 산업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특화 과제를 발굴하고, 농업용 로봇이나 자율주행 로봇 택시와 같이 미래모빌리티와 로봇을 융합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와 신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외에도 글로벌 경쟁이 심각한 반도체에서 경북이 강점을 가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공급망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광범위한 바이오산업에서 지역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5년에는 10대 산업의 객관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관계부서와 전문가의 공동작업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재분류(산업 특수분류)하여 산업별 수출액, 매출

액, 종사자 수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현재 통계청에서 작성한 산업 특수분류는 총 22종류
▶공간정보, 관광, 농림축산식품, 디자인, 로봇, 물류, 블록체인, 전산산업
▶사회서비스, 서비스업, 소방, 스포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이러닝산업
▶재난안전, 저작권,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재산서비스, 콘텐츠, 해양수산업, 환경산업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최근의 산업환경은 대한민국과 경북에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복합적인 상황”이라며, “경북의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이 기업 밸류업과 미래 인력의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쓸것”을 강조했다.

경북의 미래! 해양바이오에서 신성장 산업을 찾다

지구 생물의 80% 이상이 바다에 존재하는데, 활용도는 전체의 10% 정도에 머물고 있어 미래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경북도는 발벗고 나섰다.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자원을 첨단기술에 접목해 바이오소재를 개발하여 식품·에너지·산업소재·의료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해양바이오산업관 부스

우리나라의 해양바이오 시장규모는 약 6,400억원으로 연평균 7.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7년에는 1조 5,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규모도 11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조감도

경북도는 선제적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지난 3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하고, 12월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포항시는 지난 6월 27일 산자부의 국가전략첨단산업인 '바이오특화단지'에 선정되어 정부의 해양바이오 권역별 특성화 산업인 의료·헬스케어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를 국비사업으로 유치하여 건립 중에 있다.

영덕군은 서·남해와 차별화된 동해안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해양바이오기초소재 발굴을 위해 '심해해양바이오뱅크'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K-웰니스 도시에 걸맞는 미역 등 해양생물을 소재로 한 이너뷰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업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울진군은 동해안 수심 200M에 위치한 해양점토를 활용한 화장품, 테라피 등 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마린펠로이드 산업화 플랫폼을 국책사업으로 유치하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울릉군은 무기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심층수를 집중 개발하는데, 기존의 먹는 물 생산외에 이를 활용한 소금, 절임식품 등 다양한 활용제품을 만들고 테라피 등 관광 산업으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K-U시티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동대와 해양심층수의 바이오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한다.

경북도는 지역별로 추진되는 특성화된 해양바이오산업을 단계별로 성장시키면서 소재개발, 연구, 실증, 기업지원 등 산업화를 위한 전주기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정된 지방예산을 극복하기 위해 해수부는 물론 타 부처의 해양바이오 R&D사업 및 관련기관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상북도 해양바이오 산업육성 포럼 개회식

이영석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육상은 이미 모든 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양에 성장먹거리가 있다"고 말하며, "연구개발 위주인 해양바이오산업이 앞으로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위를 점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을 지역성장의 새로운 산업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편집국

본보는 음식명가 코너를 통해 고객과 독자의 입장, 맛 그리고 서비스 수준을 심층 분석한 데이터로 지역 음식점을 알려 나가고 있다. 음식 명가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재단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이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산성, 공감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평가 결과,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819에 위치한 “날마다좋은집”이 그 영예를 안았다.

인심 좋은 주인장의 손맛과 정성이 더해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한우 소고기 맛집 “날마다좋은집”



수성구 이천동 54-1, 대구 지하철 2호선 연호역 1번 출구에서 시내 만촌동 방향 400m정도 위치해 넓은 주차장에 주위를 숲이 호위하며 가든스러운 느낌의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오랜 노포의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손님들을 늘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박희숙(65세) 대표가 운영하는 음식명가 “날마다좋은집”이다.

“날마다좋은집”은 여기에 자리한지도 30년 세월이 훨씬 넘었다. “날마다좋은집”은 그 이름이 이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는다. 그 이름이 정겹다.

대구 최고의 고기맛집인 “날마다좋은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연석 그대로 청석돌에 고기를 굽는

다. 타지도 않고 기름은 돌이 빨아들여서 고기의 맛을 한층 더해주는 방식으로 주인장은 지금까지 고수해 오고 있다.

메뉴로 나오는 안창살, 꽃등심, 생갈비살 등은 청석돌 위에서 그 맛을 최고로 자랑한다.

고기 외 “날마다좋은집”의 최고 메뉴라면 영양누룽지를 손꼽을 수 있다.

‘가마솥에 누룽지’란 말처럼 지금까지 한결같이 가마솥에다 누룽지를 누린다.

주인장은 말한다.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기계의 힘을 빌려 누룽지를 만들어 봤지만, 그 맛을 제대로 살릴 수

는 없었다. 그래서 옛 방식 그대로 가마
솥에 직접 눌러서 끓여 나온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건과류를 넣지요?”하고 묻는다.

얼마나 고소했으면 이러실까 싶지만, 건
과류나 다른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
는다. 직접 가마솥에 누린 누룽지와 쌀
뜨물, 아주 소량의 참기름이 전부다.

오시는 손님들에게 맛있게 누룽지를 끓
이는 방법을 공개하지만 따라할 수 없는 맛은 그 가마솥
의 누룽지 때문이다.

정식 메뉴에는 없지만 “날마다좋은집”이 최고로 사랑
을 받는 음식은 우거지이다. 하루도 한 번도 빠지지 않
고 손님상에 나가는 우거지로 무는 시래기, 배추는 우
거지로 구분된다.

우거지는 배추를 빠른 시간에 삶아 찬물에 재빨리 열기
를 식혀야만이 부드러워진다. 하루 동안 물기를 뺀 다
음 소뼈 우린 육수에 된장과 갖은 양념으로 끓여서 재탄
생하는 음식이다.

부드러움과 구수한 맛에 찾는 분들이 최고라고 엄지척
을 들어 보인다. 담아서 나오는 토속적인 뚝배기 그릇
에 김이 모락모락나게 담아 손님상에 나오면 젓가락질
이 절로 간다.



점심특선으로 영양누룽지정식 외에도 돌솥밥정식, 날
마다 정식, 된장국수 정식, 한우육회비빔밥도 부담없이
그 맛을 즐길 수 있다.

직접 농사지은 야채에다 따라 나오는 샐러드, 장아찌,
양념게장, 재래기무침, 미니전, 열무김치 등은 맛깔나
서 손님들의 입맛을 돌게 한다.

고소하고 감칠맛이 뛰어난 육회와 찜갈비정식, 그리고
한우불고기정식도 손님들이 자주 찾는 메뉴이고, 주인
장이직접 만든 촌(손)두부와 도토리묵무침도 추가메뉴
로 제공된다.

“날마다좋은집”은 외식산업 최고경영자의 집으로 대
구광역시 위탁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으로 명명되고 있다.

어딜 가나 접하거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라 볼 수 있
지만, 조미료를 배제하고 좋은 식자재를 고집하며, 나
만의 조리기법으로 정성을 쏟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날마다좋은집”
이다.

박 대표는 3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앞으로도 계속 최
고의 맛과 서비스로 정성 가득 담긴 음식을 제공함으로
써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늘 행복하기를 소망해본다.

편집국

대구간송미술관을 가다

대구간송미술관이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점이자, '한국 근대미술의 발상지'인 대구에서 새롭게 출발하였다. 간송미술관의 유일한 상설 전시공간으로서 '문화보국 정신'으로 지켜온 문화유산과 그 의미를 다양한 전시와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하고, 우리 문화로 하나 되는 소통과 융합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2024년 9월 30일 일요일 아침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대구간송미술관」을 찾았다.

「대구간송미술관」에서는 2024년 9월 3일(화)부터 12월 1일(일)까지 90일간 개관기념 《여세동보(與世同寶)-세상 함께 보배 삼아》국보·보물 특별전이 개최된다. '여세동보'는 보화각 머릿돌에 새겨진 오세창의 글귀로 이번 전시의 작품 하나하나가 보배라는 점을 강조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신윤복의 미인도와 월하정인, 그리고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등 국보와 보물급 지정문화유산 40건 97점과 간송 유품 26건 60점 등 총 66건 157점이 6개 전시실에 나누어 전시됐다.

전시 작품 소개

김홍도의 「고사인물도」는 왕, 장군, 시인 등 역사 속의 유명한 인물의 이야기와 교훈을 담은 그림이다. 17세기부터 이런 종류의 인물화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당나라, 송나라 학자들이 그린 그림이 인기가 많았다.

김홍도만의 그림 구성과 선, 여백이 돋보이는 이 그림은 원래 8개의 폭이 연결된 병풍으로 만들어졌다.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여러 폭에 걸쳐 담을 수 있고, 세로로 긴 배경에 풍경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것이 병풍 작품의 특징이다.

김홍도는 풍속화, 인물화, 어진 등 모든 그림을 잘 그린 화가이다. 이 때문에 시도 잘 쓰고 글씨도 잘 썼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마상청앵도」는 당나귀를 탄 선비가 피꼬리를 보는 모습이 담긴 그림이다. 노래를 잘하는 피꼬리는 특히 봄에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김홍도는 그림에 옅은 청록색을 사용해 마음이 들뜨는 봄의 느낌을 더했다.

그림 속의 시는 김홍도의 동료 화가 이인문이 짓고, 김홍도가 대신 썼다. 김홍도의 글씨는 그림만큼이나 아름답다. 시는 '약기처럼 아름다운 피꼬리 소리가 베틀로 실은 짜듯 이리저리 오가며 들리고, 봄비와 안개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내용이다. 시와 함께 그림을 감상하면 봄비가 내리는 소리와 피꼬리 소리까지 들리는 듯하다.

신윤복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멋과 흥을 그림으로 남긴 특별한 화가이다. 그의 그림에는 다른 화가와 비교할 수 없는 개성과 매력이 있어 풍속화로 유명했던 김홍도의

그림과는 큰 차이가 있다.

김홍도가 농민의 생활을 주로 그렸다면 신윤복은 한양의 도시 풍경이나 남녀 간의 사랑 등을 그렸다. 또한 김홍도는 양반의 관점에서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그림에 담았지만, 신윤복은 그림으로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해원전신첩』의 그림들은 조선시대 한양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그림 속 인물의 표정과 행동, 화려한 옷, 어떤 사건을 맞닥뜨린 순간의 모습은 여러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든다.

신윤복은 단순히 본 것을 기록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을 그림 속에 담았다. 그의 그림에는 자신과 같은 중인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고, 인간의 본모습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신윤복은 여성의 얼굴, 몸을 묘사하는 인물화에 뛰어났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에 견줄만한 그의 대표작품 『미인도』는 여성이 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그림이다. 보기 좋게 차려입은 여성은 가름한 얼굴에 그윽한 눈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신윤복은 맑고 은은한 색으로 우아하고 품위 있게 여성을 그렸다.

한자를 읽고 쓰기 어려운 백성을 위해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 어떤 글자가 있는지 설명하는 해설을 함께 만들었는데, 이것을 『훈민정음해례본』이라고 한다.

훈민정음해례본에서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또한 훈민정음을 함께 만든 신하들이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와 조금 다르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가장 처음 만들어진 한글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수 있다.

김정희는 먹으로 난초를 그린 '묵란화'를 회화작품으로 가장 많이 남겼다. 『난맹첩』은 묵란화를 중심으로 김정희의 작품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화첩의 제목인 '난맹'은 '마음을 같이 하는 모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난을 그릴 때의 다짐'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김정희는 난맹첩에서 난을 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특히 글씨를 쓰듯 난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델로 나선 여인은 기녀로 보인다. 여성은 몸에 꼭 맞는 삼회장저고리와 풍성하게 꾸민 치마를 입어 조선 후기 여성의 세련된 옷차림을 보여준다. 살짝 들린 버선코와 손가락의 움직임에서 생동감이 느껴진다.

미인도는 신윤복의 인물화 중에서도 최고로 꼽힌다. 미인도가 나온 이후 초상화를 그리 대 전신을 담는 방식이 널리 퍼졌다. 이 그림이 19세기 미인도의 기준을 만든 것이다.

세 번의 붓질로 난잎의 굵기를 조절하는 삼전법이나 점과 빼침으로 단순하게 꽃을 표현한 점 등은 서예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837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제주도로 유배를 다녀온 뒤, 김정희는 묵란화를 거의 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화가들에게 난맹첩은 오랫동안 묵란화의 교과서처럼 여겨졌다.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은 당당하게 벌어진 어깨에서부터 이어지는 곡선이 아름다운 고려의 매병이다. 매병의 몸에는 구름과 학이 가득 그려져 있다. 마치 구름 가득한 하늘을 수십 마리의 학이 날아다니는 듯하다. 이렇게 구름과 학을 함께 그린 무늬를 ‘운학문’이라고 하며, 장수를 뜻한다.

동그란 원 안에 있는 학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원 밖에 있는 학은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매병 바닥에 연꽃의 무늬가 그려져 있어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도자기를 만들 때 겉부분을 파내고 파낸 부분에 다른 색깔의 흙을 채워 구우면 푸른 청자에 흰색과 검은색 무늬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상감’ 기법이라고 한다. 이는 고려가 만든 특별한 기술이었다. 고려의 뛰어난 상감기술을 보여주는 이 매병은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분청사기박지철채연화문병』은 고려청자가 인기가 줄어들고 조선백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났다. 청자보다 더 어두운 색의 흙을 사용하여 빚고, 그 위에 흰색 흙인 백토를 얇게 바른 도자기가 분청사기이다.

물방울 모양의 몸에 큼직한 흰색 연꽃이 그려져 있다. 백토를 칠한 반죽 위에 날카로운 도구로 연꽃을 투박하게 그린 뒤 배경 부분에 백토를 긁어냈다. 이렇게 장식과 배경의 색을 다르게 나타낸 것이 박지 기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배경에 녹색을 내는 안료를 칠해서 흰색 연꽃이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 마치 한여름 연못에 핀 흰색 연꽃을 보는 듯하다.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은 다양한 장식 방법, 큼직하고 단순한 문양, 거친 표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병에서는 분청사기의 모든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은 가운데 부처와 양옆에 두 명의 보살을 함께 모신 불상이다. 이렇게 부처와 두 명의 보살을 함께 모신 불상을 삼존상이라고 한다. 부처와 보살 뒤에 배 모양의 큰 금빛 판이 보인다. 부처가 깨달은 지혜와 진리를 빛으로 표현한 것으로 ‘광배’라고 한다.

이 불상은 자식이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바라며 만든 것으로, 6세기경 삼국시대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듯하다. 차분하고 평화로운

모습의 불상을 바라보며, 먼저 떠난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씻어냈을 것이다.

간송(澗松) 전형필 이야기

간송 전형필(1906~1962)은 1906년 대한제국 시대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었다.

간송은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결코 사적으로 호의호식하지 않았다.

『문화로 나라를 지킨다(文化保國)』는 스승 위창 오세창(3·1운동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의 가르침을 평생토록 실천하며, 사비를 털어 회화·서예·전적·도자 등 우리 문화유산을 방대하게 수집하며, 우리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화각’을 설립하여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다.

만품萬品이 뒤섞이어 새집을 채웠구나. 서화書畵 심히 아름답고, 고동古董은 자랑할 만, 일가에 모인 것이, 천추千秋의 정화精華로다. 세상 함께 보배 삼아, 자손 길이 보존하세.

-위창 오세창(1864~1953)

대구간송미술관은 개관전이 총 22만 4,000여 명(1일 평균 2,881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지역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부상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4 한국 관광의 별」 신규 관광지 분야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편집국



팔공산 자락의 청정자연 속 쉼터
자연의 품요움과 배움의 성장
교육과 힐링의 중심 대경교육원



대경리조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신의 교육시설 및 편안한 쉼터의 숙박시설, 양질의 식사, 각종 체육·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경북 경산시 와촌면 (청통와촌IC에서 5분 소요)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수려한 주위 경관과 잘 어우러져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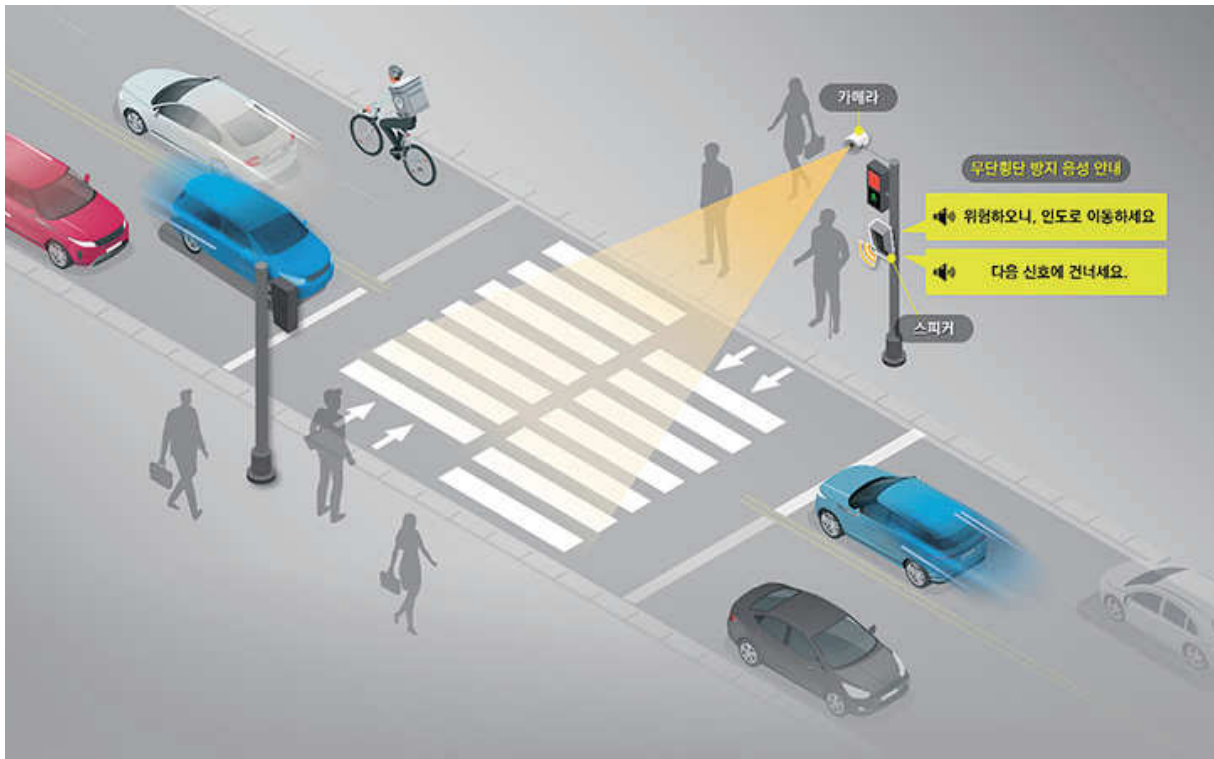


대경리조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Home Page: www.dghrd.co.kr

대구, 인공지능 기술로 보행자 안전 지킨다 무단횡단 경고부터 녹색신호 연장까지, 스마트횡단보도 본격 운영

대구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스마트횡단보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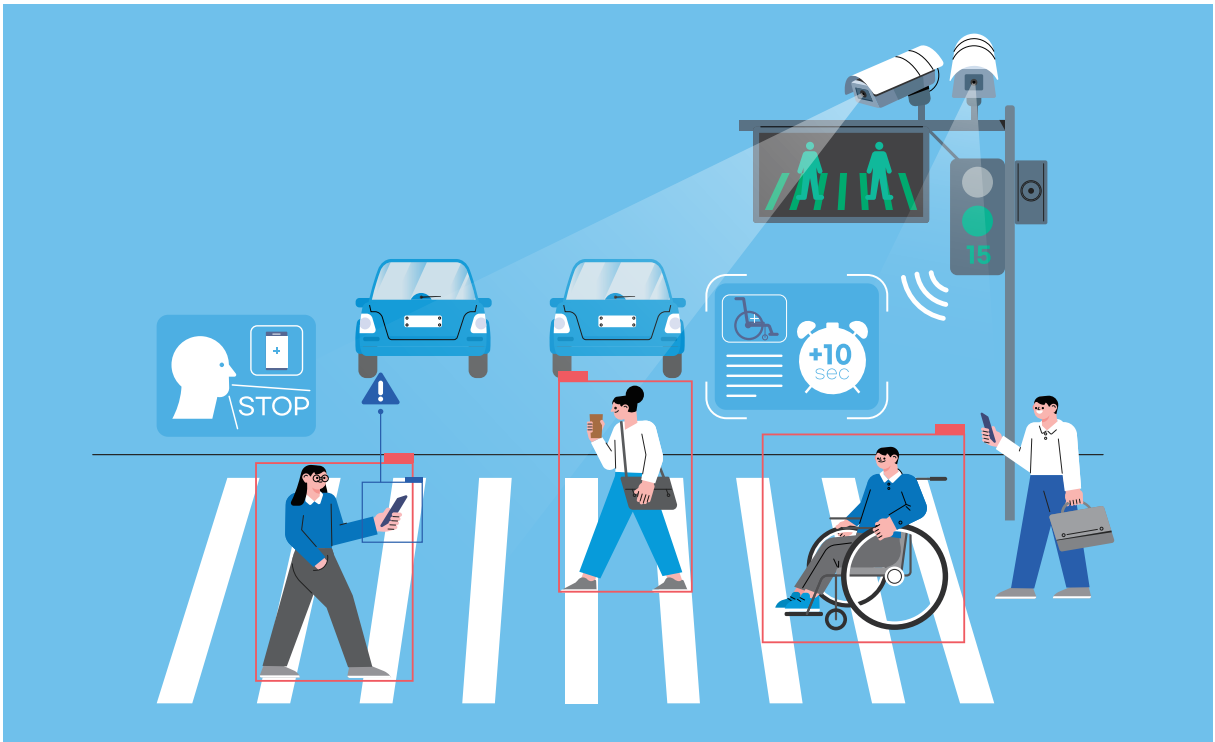
스마트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양 끝단에 인공지능 기반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행자를 자동 감지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문구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안전지역을 벗어나 무단횡단을 시도하면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로 위험을 알려주고, 녹색신호 잔여 시간이 보행자가 건너야 할 거리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라는 음성 안내를 내보낸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편까지 다다를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녹색신호 시간을 조금 연장해 보행자가 안전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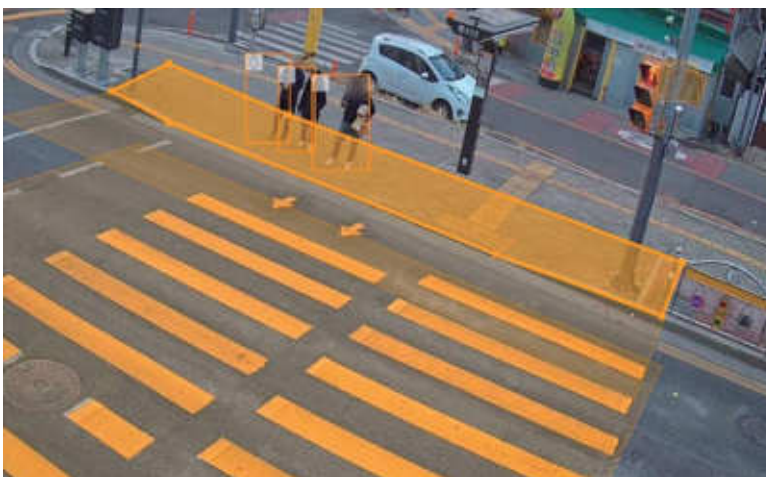
이 모든 서비스는 보행자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카메라 덕분에 가능하다.

횡단보도 양쪽 가장자리에서 보행자의 위치와 행동을 자동으로 포착해 미리 설정된 안전지역을 벗어나



는 등의 위험 행동을 사전에 경고하는 것으로 대구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했다.

스마트횡단보도 정식 서비스 시작을 계기로 본 장치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성을 입증하고, 추가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운영 후 온·오프라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현장

대구시는 2023년 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구 6개소에서 시범운영을 했으며, 2024년 9억 원의 예산으로 서비스 지역을 대구 전역 20개소로 확장해 오는 1월 13일(월) 스마트횡단보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을 통해 2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용 만족도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 교통국장은 “대시민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이 활발한 가운데, 정식 서비스를 시작

하는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서비스 지역 확대와 추가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출처: 대구시 뉴스룸]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이웃돕기 성금 5천만원 기탁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경북도는 3일 호텔인터볼고 대구에서 열린 '2025년 신년인사회'에서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로부터 받은 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맡겼다. 이 자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박한상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가 회원사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이웃돕기 성금 5천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하게 사용된다.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는 매년 재해 피해 극복 성금,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어려움에 부딪친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며, 기업의 사회공헌과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박한상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장은 "이번 성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공헌과 희망 나눔 활동에 앞장서는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947년 설립된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는 도내 967개 종합건설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건설업 진흥과 제도개선, 회원 복리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출처: 경북도 보도자료]

차원이 다른 고압산소로 나에게 투자할 시간



브이산소클리닉

안티에이징

염증 및 상처회복

수술 후 다운타임 감소

인지기능개선

당뇨 및 고혈압

암치료 후 재발방지

피로개선

남·녀 갱년기 장애 개선

면역억제 및 조직보존

불면증 개선

스포츠 재활



대표전화 1577-2604

오시는길 대구 중구 공평로 10길 18 브이스퀘어
(삼덕동 중앙도서관 맞은편) 1층

진료시간 월·수·목 09:00 - 19:00

화 · 금 09:00 - 20:30

토 요 일 09:00 - 17:00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인숙 의장, 이연미 부의장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생활 주변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가 늘어나고 중앙정부의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의사 결정을 하는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와 의결 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집행기관인 지방 자치단체장이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18조).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확립되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지방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며, 지방자치 단체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을 견제 및 감시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지위와 관련하여 지방의회는 자치행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지방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정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 등을 한다.



동구의회, 구민과 함께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동구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특히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동구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현안 해결을 넘어 동구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고,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중심에는 제9대 후반기 동구의회를 이끌고 있는 정인숙 의장과 이연미 부의장이 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하는 책임 있는 의정



정인숙 의장

정인숙 의장(바 선거구, 안심3,4, 혁신동, 국민의힘 3선)은 제7·8·9대 동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 의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 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로부터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 누구나 쉽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정 의장은 생활 속 작은 정책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세심한 의정을 실천하고 있다.

정인숙 의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정책에 담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며 신뢰받는 의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일상 속 불편과 안전을 살피는 실천적 의정

이연미 부의장(다 선거구, 신천, 효목동, 국민의힘 2선)은 제8·9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을 중심으

로 한 발 빠른 의정을 펼치고 있다. 하반기 부의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부의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미관과 안전을 개선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 관리 시스템은 지역민들의 일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연미 부의장은 “작은 불편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주민의 일상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주민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연미 부의장

동구의회의 미래 - 구민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동구의회는 정인숙 의장과 이연미 부의장을 중심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동구의회를 만들어갈 것이며,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더 나은 동구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편집국



‘대경인재개발원’은
경영평가사, 리더 역량개발, 그리고 인재양성 등
교육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 및 프로그램

- AI·인재양성
- 리더십 역량개발
- 창업 및 기업가 정신
- 경영평가사 자격수여
- 성공 및 감성마케팅
- 테마별 맞춤 특강
- 학점인증제 및 교육훈련
- 펀(Fun) 경영 등 경영전략
- 주민자치대학, 좌담회, 토론회 등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30, 그루타워 502호
(대흥동 873-1) Tel) 053.721.6757 Fax) 053.766.0379

경북본부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대구 동구청 축제의 여왕, 관광정책팀 진영 팀장



공무원을 직업으로 삼은 것이 언제부터이며 그동안 어떤 보직을 맡아왔었나?

2007년 6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첫 공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 동구청 행정지원과, 효목2동 총괄팀장,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장을 거쳐 지금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수선하게 하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취가 뒤따르는 이들의 길이 될 것이니.’ 踏雪(답설) 이란 시입니다. 눈길을 걸으면서도 뒤에 남는 발자국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서로의 이정표가 됨에 나의 언행에 대

한 책임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저는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겨 주민들에게는 봉사자로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동료들에게는 배려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직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자신의 장점 혹은 강점은 무엇인가?

공무직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제 강점은 친화력과 소통 능력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팀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업무 진행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장점이 항상 완벽하게 발휘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특성상 업무가 순환적으로 바뀌는데,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의 어려움은 없는가?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특성상 업무 순환은 조직 내에서 중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업무를 맡으면서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때문에, 각 업무를 맡을 때마다 새로운 도전이자 학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왔지만, 긴장감과 함께 업무의 변화가 주는 관점이나 방

식은 점차 나의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정책팀장으로 업무를 수행 중인데, 이에 대한 소감은?

대구 동구는 역사와 문화가 깊이 살아 있는 지역으로, 매력적인 관광 자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정책을 기획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우리 동구는 특히 팔공산, 동대구역, 동촌유원지와 같은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있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많은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의 특색을 살린 지역 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정책팀장으로서, 이러한 자원들을 잘 연결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즐겁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가?

보람차고 즐거웠던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순간 중, 최근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울림 축제를 진행하였을 때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느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웃음과 감사한 마음을 받으면서 이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대체로 '에너지자이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에너지가 넘치고 추진력이 좋은 사

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런 모습에서 활력을 주는 면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는 무엇인가?

저는 작지만 확실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공직자로서 거창한 목표보다는 제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내고 싶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히 돕는 것.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며 내가 맡은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원현 기자



2025 대구마라톤대회



2025 대구마라톤 대회가 오는 2월 23일(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 및 시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육상연맹(WA)과 대한육상연맹(KAAF)에 등록된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하는 풀코스(42.195km) 부문과, 마스터즈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엘리트 부문에서는 국내외 총 1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WA 및 KAAF에 등록된 선수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상금은 국제 부문 1위에게 16만 달러, 국내 부문 1위에게 2천만 원이 수여되며, 세계신기록, 대구마라톤 신기록,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들에게는 추가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마스터즈 부문은 풀코스,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약 5km)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만 명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풀코스 7만 원, 하프코스 및 10km는 4만 원, 건강달리기는 3만 원이며,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코스별 제한시간이 있으므로 참가자들은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하프코스 참가자 7,000명의 안전한 출발을 위해 기록증 제출에 따른 출발 그룹 구분이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완주한 기록증을 2025년 1월 3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마지막 출발 그룹으로 배정됩니다.

대구마라톤 대회는 매년 국내외 마라톤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스포츠 문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구의 아름다운 도심을 달리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기혁 기자



청도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전통과 지역의 화합을 기념하는 '청도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이 오는 2025년 2월 12일(수)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청도군농업인회관에서 진행되며, 청도의 전통 민속놀이와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쥐불놀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달집태우기는 한 해의 액운을 태우고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도군과 달집전승보존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 문화 계승과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며, 무료 입장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도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은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되새기며,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청도군의 자연과 어우러진 전통 행사에 참여하여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청도군청 문화관광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혁 기자



대구광역시 창업정책에 관한 제언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벤처창업학과 김대건 교수

대구는 전통 제조업과 섬유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중심지이지만, 최근 성장 정체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역 경쟁력 약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창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청년 창업 지원, 스타트업 육성, 창업보육센터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지역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대구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첫째, 지역 기업과 연계한 스피노프 창업 촉진, 둘째, 대학 창업교육센터의 통합 운영, 셋째, 대학을 창업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창업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개별 지원에서 벗어나 연계와 통합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본 기고문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대구형 창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 기업과 연계한 스피노프 창업

대구는 지역 기업을 활용한 스피노프 창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프 창업은 기존 기업이나 기관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창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핀란드와 독일이 있다.

1. 핀란드: 노키아(Nokia)의 스피노프 창업 생태계 구축
핀란드는 노키아 구조조정 이후, 퇴직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브릿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업을 적극 지원했다. 이를 통해 슈퍼셀과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이 탄생했고, 핀란드는 스타트업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2.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산업 스피노프 창업 모델
독일은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의 기술 창업을 촉진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는 창업자들에게 기술 이전, 초기 자금, 공간을 지원하며, 연구소와 지속적인 협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MP3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스피노프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는 기업 퇴직자와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스피노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자금과 공간, 멘토링을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업과 협력해 창업을 유도하고, 연구자들이 창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창업 사례 공유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핀란드의 슬러시와 같은 창업 행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핀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 기업과 연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대구는 혁신 창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 통합형 창업교육센터 운영의 필요성

대구는 지역 내 대학들이 운영하는 창업교육센터를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해왔지만, 개별 운영으로 인한 자원의 중복, 창업 성과의 편차, 대학 간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형 창업교육센터 운영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공간, 장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 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이 각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자와 멘토, 투자자가 자유롭게 교류하며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창업교육의 표준화와 공동 운영이 필요하다. 대학별로 상이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대구형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대학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창업 역량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학별 창업 공간과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구 창업 인프라 공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창업자들이 대학 구분 없이 필요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창업 초기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별 창업 멘토를 통합하여 '대구 창업 멘토단'을 구성하고, 창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창업경진대회를 통합하여 '대구 대학 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자들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창업팀에 대한 후속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형 운영 전략이 실현된다면, 대학 간 창업 성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창업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 창업 생태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는 대학 창업교육센터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창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학을 활용한 창업거점 구축의 필요성

대구시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대학을 창업거점으로 삼아 창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순한 창업 공간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창업거점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가 집중 육성하는 모빌리티, 로봇, 의료헬스케어, ABB(AI, Big Data, Blockchain), 반도체 등 5대 미래

산업과 창업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 창업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현재 대학들은 연구 인프라와 기술 인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창업지원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대학과 지역 산업 간 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창업거점이 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는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결될 때 창업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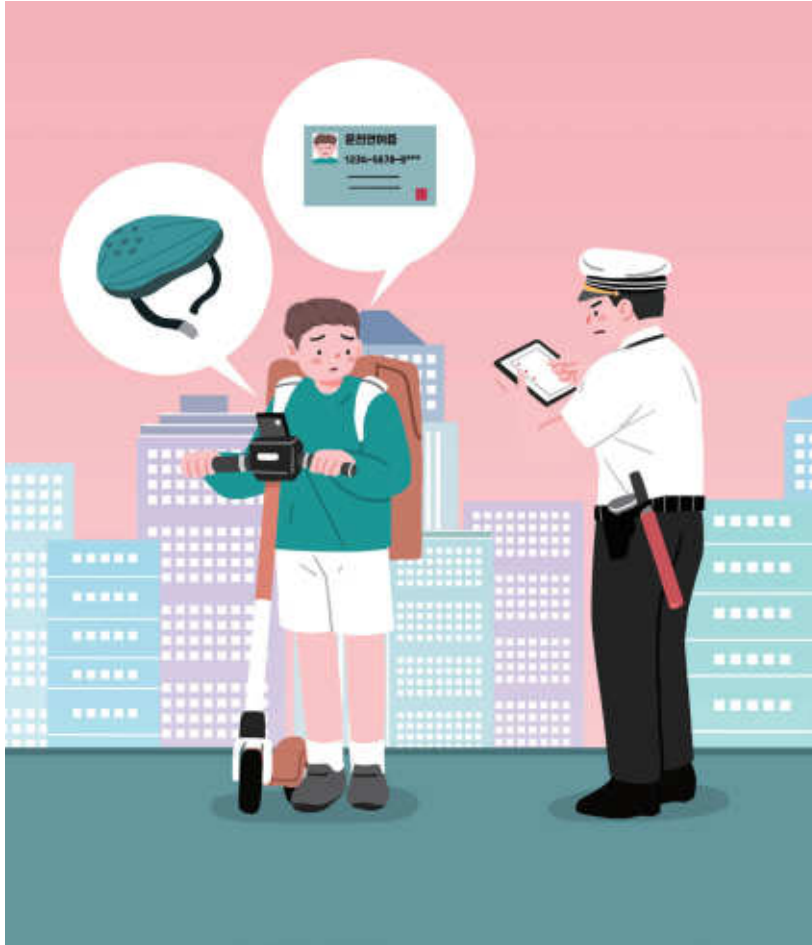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학을 기반으로 한 5대 미래 산업별 특화 창업거점을 구축해야 한다. 모빌리티 창업거점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기술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대학의 자동차 부품·전장 기술 연구성과와 창업 아이디어가 결합되는 개방형 R&D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로봇 창업거점은 산업용 및 서비스 로봇 창업자들이 대학 연구자 및 지역 로봇 기업과 협력해 기술 개발부터 현장 테스트까지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의료헬스케어 창업거점은 의료기기, 바이오테크 창업을 지원하며, 대학 연구 인프라와 의료기관·바이오기업이 협력하여 임상시험과 인허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ABB 창업거점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기반 창업을 위한 개방형 기술 플랫폼으로, 대학 연구진과 창업자가 협력하고,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지역 산업 전반에 기술을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도체 창업거점은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창업을 집중 지원하며, 대학의 반도체 설계 및 나노소재 연구 역량을 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산업단지와 연계해 연구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처럼 대구시는 대학을 단순한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5대 미래 산업과 연계한 특화 창업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 대학,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구는 산업과 기술이 융합하는 새로운 창업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창업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경북경찰, 전동킥보드 단속 결과 3,462건 적발... 시민 안전 위협



개인형이동장치(PM) 사용자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와 피해가 날로 증가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상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용자가 법규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모 미착용 2,479건, 승차정원 위반 27건, 음주운전 62건, 무면허운전 646건, 그리고 기타 24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

속이 집중된 지역은 포항시로, 전체 단속 건수의 37%인 1,271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 외 경산시와 구미시도 각각 698건, 324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경찰청은 단속뿐만 아니라, 학원가와 버스정류장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학교 및 대여업체를 방문해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단속 결과는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서,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

(PM)는 주차 편리성 등 장점이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2024년 8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 행위 총 3,4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기혁 기자

성공적인 지역축제

축제는 어떤 대상이나 분야를 주제로 벌어지는 대대적인 행사로, 보고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대표적인 체험상품이자 소비활동이다. 축제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 제고,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들의 화합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지방 자립 및 지역 활력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요소라 할 수 있기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특색 및 지역 산업을 반영한 축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원을 두고서 축제 주제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는데, 대중적이며 주제가 있는 행사 또는 볼거리·놀거리·먹거리·살거리·체험거리 등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실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타 지자체 축제와의 차별화를 이루어야만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다.

2024년을 기준, 2일 이상 운영되는 국가지원, 지자체 주최 및 주관, 지자체 후원 및 지원, 민간 개최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를 포함한 축제는 경상북도 86개, 대구 33개 총 119개의 축제가 개최되었고 전국적으로는 총 1,170개의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렇게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 주제에 지역의 정체성, 독창성, 차별성이 나타나야 하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축제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유사성격 축제 개최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축제 조직에 의한 차별화된 축제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타 축제 대비 지역 축제 관련 문제점, 장점, 향후 축제 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축제평가 및 지자체의 축제와 연계한 확고한 비전은 축제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박균익 기자

지역축제 성공요인

성공요인	구성내역
자치단체의 확고한 비전	- 자치단체의 확고한 비전 - 비전과 연계된 축제
주제	- 지역적 특성 반영정도 - 이미지 형상화 용이성
주민참여	- 자원봉사 활동 정도 - 프로그램 참여정도
조직	- 운영주체와 조직간 협력정도 - 조직의 안정성 -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간 일체감
평가	- 평가 결과를 다음 축제에 반영하는 정도 - 평가의 중요성 인지 정도
전문성	- 연구기관 유무 - 축제 주제와 운영에 대한 전문성 - 축제 산업화
축제인프라	- 축제 장소 적절성 - 축제 편의시설 확보 여부
방문객 수	- 외지 방문객수
재정자립도	- 스폰서 유치 - 재정부문 투명성

2024년 대구경북 축제 리스트

대구축제		
순번	지자체	축제명
1	대구시	제46회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2	대구시	파워풀대구페스티벌
3	대구시	대구생활문화제
4	대구시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5	대구시	제18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6	대구시	대구치맥페스티벌
7	대구시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8	대구시	대구콘텐츠페어
9	대구시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 축제
10	대구시	대구포크페스티벌
11	대구시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12	중구	제35회 동성로축제
13	중구	대구 문화유산 야행
14	중구	제11회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15	중구	제19회 패션주얼리위크
16	중구	서문시장글로벌대축제
17	중구	교동시장한마음축제
18	중구	김광석길페스티벌
19	중구	대구화교중화문화축제
20	동구	제13회 팔공산 벚꽃축제
21	동구	제23회 팔공산 단풍축제
22	서구	달구벌목민관 부임 마을축제
23	남구	제29회 대덕제 「대구앞산축제」
24	남구	제12회 로드페스티벌
25	남구	2024 대구할로윈축제
26	북구	제4회 떡볶이 페스티벌
27	북구	2024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28	수성구	수성못페스티벌
29	달서구	장미꽃 필 무렵
30	달서구	선사문화체험축제
31	달서구	희망달서 대축제
32	달성군	제28회 비슬산 참꽃 문화제
33	달성군	2024 yes! 키즈존

경상북도 축제		
순번	지자체	축제명
1	포항시	포항해병대문화축제
2	포항시	포항국제불빛축제
3	포항시	포항철길숲야행축제
4	포항시	송도비치 레트로 페스티벌
5	포항시	포항운하축제
6	포항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7	포항시	포항 구룡포 대게 축제
8	포항시	포항 호미곶 돌문어 축제
9	포항시	포항 영일만 검은돌장어 축제
10	포항시	포항 수산물 FESTIVAL
11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제
12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겨울바다 축제
13	포항시	부조장터문화축제
14	경주시	경주벚꽃축제
15	경주시	신라문화제
16	김천시	김천앤 과일축제
17	김천시	김천김밥축제
18	안동시	안동암산얼음축제
19	안동시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20	안동시	안동 벚꽃축제
21	안동시	안동수[水]페스타
22	안동시	2024 문화제 야행
23	안동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4	안동시	2024 하회선유줄불놀이
25	구미시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
26	구미시	제3회 구미독서문화축제
27	구미시	제8회 인동도시숲문화축제
28	구미시	제3회 구미푸드페스티벌
29	구미시	제3회 구미라면축제
30	영주시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31	영주시	영주 소백산철쭉제
32	영주시	영주 시원(ONE)축제
33	영주시	영주 무섬외나무다리축제

경상북도 축제		
순번	지자체	축제명
34	영주시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
35	영주시	영주장날 농특산물축제
36	영천시	제22회 영천한약축제 with 작약꽃
37	영천시	와! 과-한 영천축제 (영천과일,와인,한우축제)
38	영천시	제21회영천보현산별빛축제
39	영천시	제50회 영천문화예술제
40	영천시	제4회 중약팔공산 은빛문화제
41	상주시	2024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42	상주시	2024 상주곶감축제
43	문경시	제26회 문경차사발축제
44	문경시	제20회 문경오미자축제
45	문경시	제19회 문경사과축제
46	문경시	제13회 문경약돌한우축제
47	경산시	2024 경산자인단오제
48	경산시	2024 경산갯바위소원성취축제
49	경산시	제13회 경산대추&농산물한마당
50	의성군	제17회 산수유마을꽃맞이행사
51	의성군	제2회 남대천 벚꽃축제
52	의성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53	청송군	제18회 청송사과축제
54	영양군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55	영양군	제3회 수비능이축제
56	영양군	영양고추 H.O.T. festival
57	영양군	영양반딧불이축제
58	영덕군	제27회 영덕대게축제
59	영덕군	물가자미축제
60	영덕군	영덕황금은어축제
61	영덕군	영덕국제Hi-웰니스페스타
62	영덕군	경북대종타종식및해맞이
63	청도군	제21회 청도소싸움축제
64	청도군	제17회 청도반시축제
65	청도군	제8회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경상북도 축제		
순번	지자체	축제명
66	고령군	고령대가야축제
67	성주군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68	성주군	2024 성주가야산황금들녘 메뚜기 축제
69	성주군	2024 썸머위터바캉스
70	칠곡군	제11회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
71	칠곡군	제 15회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72	칠곡군	가산산성 문화유산 야행
73	칠곡군	가산산성 문화제
74	예천군	2024 예천활축제
75	예천군	2024 곤충 & 서머쿨 페스티벌
76	예천군	2024 예천삼강주막나루터축제
77	예천군	2024 예천농산물축제
78	예천군	제10회 예천용궁순대축제
79	예천군	2024 문화재 야행
80	봉화군	제26회 봉화은어축제
81	봉화군	제28회 봉화송이축제
82	봉화군	분천 한여름·겨울 산타마을
83	울진군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84	울진군	죽변항 수산물 축제
85	울릉군	제22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
86	울릉군	2024년 울릉도 눈축제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

지원대상: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인력난 가중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구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에게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임대료 50% 인하 연장 시행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38종 142대)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여 대여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도 임대료를 50% 감면 시행해 약 15백만 원의 감면 혜택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영농철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과 더불어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농기계 순회 교육 등을 통해 2024년도 한 해 동안 사용 농기계 587대 정비점검으로 농업인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농기계 사용 안전 교육도 병행 실시해 농기계 사용 농업인들에게 영농철 기계화 제고에도 큰 보탬이 됐다.

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에게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임대농기계 활용 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사용 안전 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최기혁 기자

2025년 경상북도 수출 415억 달러 목표로 해외시장 개척 총력



경상북도는 전 세계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하는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가운데서도 수출 415억 달러를 목표로 잡고, 수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025 경상북도 통상확대 전략'을 수립했다. 경북도는 2025년 수출 목표를 2024년 실적 예상치인 405억 달러를 넘어 41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직접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글로벌 경제행사 및 온라인플랫폼 활용 해외진출 강화 ▲안정적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등 기업 부담 경감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사업 전개 등 3,000여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산 128억원을 투입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로 인해 높아지는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전시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상품전 운영 등 품목별 시장개척 사업을 총 25회,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품, 화장품, 소비재는 한류 열풍을 활용해 아시아, CIS, 유럽 등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한국 소비재 전시회에 참가하고, CIS, 인도, 중국, 중동에 소비재 및 식품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며, 미국, 필리핀, 유럽에서 경북우수상품전을 개최한다.

자동차부품, 기계 등은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일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

되는 제조 및 섬유기계 전시회에 참가하고, 북미 자동차 부품사절단, 중동 바이오의료사절단, CIS 농자재 사절단을 파견한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해 종합품목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4회 정도 개최해 국내에서 해외 구매자와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대규모 글로벌 경제행사와 연계한 수출상담전시회와 함께 온라인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강화한다. 4월 중순에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미주 한인비즈니스 대회에 경북상품관을 구성해 30개사가 참가하고, 4월 하순에는 월드옥타 세계대표자 대회가 안동에서 개최됨에 따라 대회 운영과 함께 이와 연계된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200개사 정도가 해외 구매자와 만날 기회를 가진다.

9월에는 APEC 국가의 기업 구매담당자 등을 초청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2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경북도의 IT전자, 방위산업, 혁신기술 등을 보유한 50개 기업의 제품을 경주엑스포 공원에 전시해 홍보하는 기술한류박람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공략은 연중 지원한다.

최기혁 기자

보행자 중심의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변화

최근 국내 여러 지자체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 내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횡단보도 설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며,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보행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교통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보행자 사고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차로나 신호등이 부족한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횡단보도의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 환경 개선 및 횡단보도 설치 타당성을 위한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대민 홍보 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어 관련 시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의 주요 정책 방향

1.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LED 점멸 표시, 보행자 감지 센서,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고령자 및 장애인 친화적 설계

보행약자를 고려한 횡단보도 설계가 확대되고 있다. 점자블록, 경사로, 신호 연장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교통약자들의 보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3. 무신호 횡단보도 확대 및 보행우선구역 지정

보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거지역 내에서는 무신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고,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여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4.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및 시인성 강화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도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고휘도 반사 도료를 적용하고, 색상 대비를 높이는 등 횡단보도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5.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캠페인 및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보행횡단보도의 설치 확대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정착된다면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보행이 활성화됨으로써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공간 부족, 예산 문제, 차량 흐름 저해 등의 이유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별 교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행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행권 보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앞으로도 각 지자체가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2024년 서울시 중심지에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기본구상과 사전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서울시 관련 기관의 의뢰로 수행하였다. 시민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이해 관계자 면담 등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고 선행연구 보고서 및 국외 선진사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과 향후 설치 방향 및 설치 근거 등 타당성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였다.



김용우 연구위원

“경영 실적 보고서 작성 역량 강화 실무 교육”

경영평가사1급 2025 자격시험!

경영 실무자 필수 / 보고서 평가 등급 “S” 받기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경영 담당자

과목		대상자	일정
ESG와 지속가능경영	조직 관리와 리더십	경영 평가사 활동을 희망하는 자	홈페이지 참조 및 세부 사항은 전화문의
경영평가 방법론	회계 세무의 이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경영 실적 보고서 관련 담당자	대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 www.dghrd.co.kr
인적자원 관리론	경영실적 보고서 실무	경영 평가 위수탁 용역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자	교육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자격명: 경영평가사1급
- 등록번호: 제2023-004860호

- 자격발급기관: 주식회사 대경인재개발원
-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위 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문 의 ☎ 053-766-1368

대경인재개발원

대경인재개발원
블로그 바로가기 ▶



동쪽 끝에서 내 생애 가장 (2) 멋진 하루

동해 푸른 바다 위
가장 먼저 태양이 뜨는 곳,
넓게 펼쳐진 하늘과 바다가
마음을 끌어내리고

내딛는 발걸음 따라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시간의 기억이 흐르는 독도

반짝이는 별을 지붕삼은
고요하고 멋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동쪽 섬, 독도



Dokdo, A BEAUTIFUL ISLAND OF KOREA

